

#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 명확히 규정되기 어려운 관계

Mario Diani (이탈리아 트렌토대학교(University of Trento) 사회학 교수)

현대 사회운동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쟁의행위와 노동조직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예컨대 Klandermans, 1984; Fantasia, 1989; Tarrow, 1989 참조), 노동운동(labor activism)을 연구하는 이들과 (다른) 사회운동(social movements)을 연구하는 이들 간의 대화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회운동을 마치 서로 다른 유형의 조직(organizations)인 것처럼 비교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정 조직의 특성에 초점을 두면서, 노조가 구성원, 조직적 특성, 행동 레퍼토리 및 정치체제(polity) 내 입지에 있어 사회운동과 상이한지 여부를 묻게 된다. 하지만 필자는 그보다는 더 광범위한 집단행동 분야(collective action fields)의 맥락에서 노조와 다른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 간의 관계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 분야는 일련의 특정 이슈들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는 복수의 행위자들(multiple actors)로 구성되어 있다(DiMaggio and Powell, 1983). 특히 (예컨대 노동 및 기타 이슈를 다루는 집합적 모임과 같은) 행사들(events)에 참가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개인들(조합원, 독립적인 활동가, 동조자)과 조직들(노조, 기타 사회적 및 정치적 집단, 결사체)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구조는 개인, 조직 및 행사를 연결하는

\* 이 글의 원문은 Juergen Groete와 Claudius Wagemann가 편집한 *Social Movements and Organized Labor: Passions and Interests*(London, Routledge, 2018)의 pp.43~65에 “Unions as social movements or unions in social movements?”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다.

관계적 패턴(relational patter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광범위한 분야 내에서 노조의 위치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사회운동조직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보다 큰 사회운동 과정 내에서 노조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정양식(mode of coordination: MoC)’이라는 개념(Diani, 2015)을 통해 우리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이 조정되는 다양한 관계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 개인, 조직 및 행사의 조정

조정양식은 “특정 집합체(collectivity) 내에서 자원이 할당되고, 결정이 이루어지며, 집단적 이해대변 기능이 정교해지고, 연대감과 상호의무감이 형성되는 관계적 과정들(relational processes)”로 이루어진다(Diani, 2015: 13~14). 이러한 과정들과 관련된 메커니즘(mechanisms)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으며, 두 부류 모두 해당 분야 내에 여러 행사(events)뿐만 아니라 복수의 조직과 개인 활동가/구성원을 포함한다. 한 부류의 메커니즘은 자원할당(resource allocation)을 일컫는데, 이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시간, 에너지, 숙련, 물질적 및 지적 자원 등을 특정 목표들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할당하고, 전술을 선택하며, 반대자 및 잠재적 동맹자들과 관계를 맺는 여러 방식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들은 특정 규칙이나 관료적 관행을 따르기도 하지만 매우 비공식적이며 지속적인 재협상을 거치기도 한다. 특정 집단이나 조직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다수의 행위자들과 관련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부류의 메커니즘은 경계 정의(boundary definition)를 일컫는데, 이 표현은 인지적 메커니즘과 정서적 메커니즘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유형의 집단행동에 있어서 그 행위자는 반대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동조적이고 때로는 중립적인, 다른 행위자들과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의는 예리함(sharpness)이나 배타성(exclusiveness)에 있어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정의 없이는 집단행동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경계 정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집합체의 독특한 특성, 이 집합체의 과거 및 미래와의 연계(links)가 문화적 및 상징적 창조와 변형의 과정들을 통해 정의되기 때문에 경계 정의는 기본

---

적으로 관념적(ideational)이다. 이와 동시에 문화와 관계는 서로를 상호구성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문화적 생산과 정체성 형성이 관계 메커니즘(relational mechanisms)을 통해 이루어진다. 관계 메커니즘의 중요한 하나의 유형은 개인별로 여러 조직에 복수로 가입하여 관여하고 있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서로 다른 집단과 조직 간의, 또는 일련의 행사들 간의, 근접성 또는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다수의 참가자들이 중복적으로 참가하는 행사들이나 다수의 구성원을 공유하는 조직들은 참가자나 구성원을 거의 또는 전혀 공유하지 않는 행사나 조직들보다 친밀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 조직적 조정양식과 사회운동적 조정양식

종종 노조는 (다른 조직들과 유사하게) 주로 구성원들의 특정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운영된다. 그러한 경우, 자원할당은 주로 각 노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각 개별 노조는 구성원을 영입하고 구성원들에게 참여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자체 전략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어떠한 캠페인을 시작하며, 어떠한 합의를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주로 각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대신 다른 조직들과의 자원 및 정보 교류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정체성과 더 넓게는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그 특정 조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이는 뒤에서 살펴보게 될 광범위한 ‘운동(movement)’의 경우와는 상반된다). 필자는 자원할당과 경계가 모두 하나의 조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특정 패턴을 조직적 조정양식(organizational MoC)으로 칭한다(Diani, 2015: 17~18).

이 모델은 노사관계 문헌(Robinson, 2000)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리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와 유사하며, 여러 다른 구체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이슈 선점(issue ownership)이나 노조 간의 분업으로 인해 하나의 노조가 특정 범주의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것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러 노조들이 동일한 산업부문의 근로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경쟁이 이념적, 지역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 근거한 노골적인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상황 모두에서 이해대변 활동은 지속적인 동맹이나 보다 광범위한 정체성을 시사하지 않으면서, 주로 특

정 노조와 그 조합원 및 조합활동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직종(trade)' 정체성은 '계급(class)' 이나 다른 유형의 정치적 정체성보다 확실히 우선한다. 우리는 여러 상황과 단계에서 이러한 일련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주요 노조들(이탈리아 노동총연맹(Confederazione Generale Italiana del Lavoro: CGIL), 이탈리아노동조합연맹(Confederazione Italiana Sindacati Lavoratori: CISL), 이탈리아노동연합(Unione Italiana del Lavoro: UIL)은 전후 시기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이 모델의 여러 측면들을 보여주었다. 이 노조들은 명백히 서로 다른 이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기업단위의 노조대표 선출 시 서로 경합을 벌였다. 하나의 노조와 동일시하는 것이 반드시 보다 광범위한 계급운동의 일환으로서 다른 노조들과도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Pizzorno et al., 1978).

특정 산업부문의 근로자들을 기능적 및 도구적으로 대변한다는 관점은, 노동계급 운동을 매우 다양한 행위자들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적 범위에 걸쳐 다양한 행사에 관여하는 대규모 활동으로 보는 우리들의 직관적 이해와는 여러 면에서 대척점에 있다. 조정양식 이론에서 사회운동은 (a) 복수의 행위자들 간에 협상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원할당 메커니즘(mechanisms of resource allocation)과 (b) 조직 또는 집단이 자체 특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집합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계 정의 메커니즘(mechanisms of boundary definition)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조직적' 조정양식과는 대조적으로, 노조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서로 협력하며 다른 조직들(다른 정치집단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및 문화적 결사체 등)과도 협력한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거나 공동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다른 이유들로 서로 경쟁하는 노조들도 특정 범주에 대한 전국협약(national contracts)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서로 세력을 규합할 수도 있고, 또는 총파업과 같은 주요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산업부문별 대표성(sectoral representation)이라는 순수한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폭 넓은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수록 노조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직들의 범위도 더욱 확대된다. 총파업 시 노조와 다른 정치조직들이 동맹을 맺는 사례도 자주 목격된다.

사회운동적 조정양식(social movement MoC)에 근접할수록, 자원할당 측면에서 서로 다른 조직들 간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연결

고리(connections)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들은 노조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정당, 지역결사체 등 여러 조직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공동의 집단 행동을 위한 중요한 자원의 순환을 촉진한다. 게다가 그들은 여러 다른 집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러한 집단들의 양립가능성(compatibility)과 공통성(commonalities)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계 정의에 기여한다(이에 대해서는 Diani, 2015: 81~88 참조). 이탈리아의 경우, 특정 정치적 기술과 전문성을 지닌 평조합원 활동가들(rank-and-file activists)이 공식적인 노조의 지원에 굳이 의존하지 않고서도 파업이나 다른 대중적 행사를 직접 추진할 수도 있다. 이는 정치적 상황이 직접 행동을 하는 데 더 유리하고 어떤 이유에서 기존 조직들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사회불안이 심각한 시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탈리아에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반은 그러한 동력이 잘 드러났던 시기였는데, 풀뿌리 활동가들(grassroots activists)은 공장협의회(factory council/Consigli di fabbrica)를 설립하고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노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 행동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적 경계를 넘어 세력을 규합하였다(Pizzorno et al., 1978). 이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체제를 지지하고 있던 공식 노조들에 반대하여 힘을 합친 노동자들의 행동은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반대운동(anti-Mubarak campaign)이 성공하는 데 기여한 주요 요인이었다(Beinin, 2012).

요컨대 사회운동 동력(social movement dynamic)은 (a) 고유의 정체성과 프로필(profiles)을 지닌 복수의 행위자들이 지속적인 방법으로 관여하는 자원할당 메커니즘과 (b) 독특한 정체성과 프로필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넓은 의미의 소속감으로 서로 긴밀히 묶여 있다고 느끼는 복수의 행위자들을 한데 모으는 경계 정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운동 동력이 반드시 기존 관료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각 집단 및 결사체에 의해 비공식적인 조직모델(informal organizational models)이 채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공식적으로 임명된 기구가 전략 및 전술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행위자들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운동과정에 관여한 여러 다른 행위자들 간의 교류패턴(pattern of exchanges)은 비공식적이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매우 관료주의적이지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협상과 동맹구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도 운동 동력이 있을 수 있다. 1960년대 후

반의 이탈리아 사례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당시 노동계급 운동이 활발하게 재개된 이유는 기성 노조들에 비판적인 새로운 조직들이 설립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즉 당시 운동 동력은 이전에는 서로 경쟁하던 노조들 간에 협업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나, 보다 비공식적인 새로운 운영방식이 도입되면서 노조 관료주의의 지배적 경향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Pizzorno et al., 1978: in particular 211~235).

### 연합적 조정양식과 하위문화적/공동체주의적 조정양식

조직적 조정양식과 사회운동적 조정양식은 행동을 동원하는 방식이 서로 매우 다르지만, 이 두 방식이 노조와 다른 사회적 및 정치적 조직들이 상호작용하는 패턴의 총체(totality)를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운동과 흔히 혼동되는 모델이 바로 연합(coalition) 모델이다. 연합은 모든 성공적인 사회운동이 가지고 있는 주요 구성요소이긴 하지만, 연합의 전형적인 특성인 공동의 목표 추진과 자원공유를 위해 반드시 관련 당사자들 간에 강력한 결속(bonds)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합은 대체로 도구적 기반(instrumental bases) 위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 간의 협력적 유대관계는 특정 캠페인이 끝난 후까지 지속될 필요는 없다. 물론 협업이 장기화되고 상호 연대감과 신뢰감이 깊어지면서 연합이 사회운동 동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밀접한 자원교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계 정의는 여전히 각 개별 조직의 프로필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발달하여 ‘계급의 부흥(bring class back in)’을 추진하고 이를 다른 투쟁과 연계하려고 노력했던 연합들은 종종 추진력을 생성하여 이를 장기적인 정강정책(political platforms)으로 전환시키고자 분투하였기 때문에 연합과 운동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있어 노조와 다른 집단 간의 연합은 그러한 연합을 추진하는 이들에 의해 대체로 전술적이며 도구적인 측면에서 고안되었다. Tattersall(2015)는 호주와 미국에서 진행된 노조와 지역사회조직 간의 연합형성(coalition building)에 관한 고찰에서 이러한 특정 조정양식의 강점과 약점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Tattersall은 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관심사,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 행동 규모를 다변화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개발해

야 하며, “연합은 단지 노조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술이다”라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이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Tattersall, 2015: 312~313 Kindle Location). 필자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는 순수한 연합적 조정양식(coalitional MoC)에서 사회운동적 조정양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다.

지난 몇십 년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 반대하거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해 도전하는 것과 같은 노동 및 관련 이슈들과 관련한 동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동원은 전통적인 노조나 다른 기성 정치조직들에 의해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러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은 비공식적인 활동가집단과 행동위원회(action committees)가 맡았으며, 이들은 주로 개인적 접촉을 통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종종 인터넷을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스페인의 이른바 인디그나도스 운동(Indignados movement / 15-M)<sup>1)</sup>은 공식적인 정치조직과 이익단체들이 이 운동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델에 가까웠다(Romanos, 2013). 이 글의 초점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로메이데이(EuroMayDay)<sup>2)</sup>는 전통적인 노조 관행과는 거리가 매우 멀면서도 5월 1일과 같이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공의례(public ritual)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조직화 양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예리한 관찰자는 “2008년 유로메이데이 시위로 인해 같은 날 열린 노동조합 행진이 왜소해 보였다”(Standing, 2011: 141~157 Kindle Locations)고 표현했다.

완전 정규직 고용(full regular employment)에 기반을 둔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모델에 무관심하고, 대신 보편적 최저임금에 중점을 두며, 시위에 이주민과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기타 소수집단을 포함시키고, 레퍼토리에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온 유로메이데이는 노조의 전통적 지지층을 전적으로 - 또는 심지어 주로 - 언급하지도 않고 조직들

1) 편집자 주: 인디그나도스(Indignados)는 스페인어로 ‘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인디그나도스 운동은 경제위기 이후 긴축정책과 부패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광장 점거운동으로서 독재 종식 이래 최대 규모의 항의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주로 젊은 층에서 주도했다. 2011년 5월 15일 마드리드 푸에르테 델 솔 광장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청년 시위자들이 참여하였고 청년실업과 긴축 재정 정책에 항의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 편집자 주: 서유럽 전역에 걸쳐 있는 불안정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이 1년에 한번씩 결집하여 대안적 발상을 요구하면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즉 유로메이데이 집회는 밀라노, 리스본, 함부르크 등 12개 유럽 도시에서 매년 5월 1일 열리는 이주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국제 시위이다.

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노동 관련 이슈들을 다룬 대규모의 동원 사례였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화는 필자가 ‘하위문화적/공동체주의적(subcultural/communitarian)’ 조정양식이라고 칭한 것에 가장 근접하며, 이러한 조정양식은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을 한데 모은다(Diani, 2015). 이러한 조정양식은 활동가들이 행사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중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비정치적 조직 모두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강도 높은 경계 작업(boundary work)을 특징으로 한다. 사실상 이러한 동원 패턴(pattern of mobilization)의 독특한 특징은 참여하는 개인들이 기성 정치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노조 가입률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Peterson, Wahlström, and Wennerhag, 2012: 289). 오히려 특이한 점은 노조보다는 대인관계를 통해 동원된 개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뒤바뀌게 된다. 조직이 동원 노력의 주된 동력인 경우, 개인들은 여러 조직에 복수로 가입함으로써 그러한 조직들 간에 비공식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이 동원 노력의 핵심에 있다면, 조직은 개인들이 만나서 일종의 집단행동을 추진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일상생활 환경, 동네, 공공집회 등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여러 배경 상황(contexts)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하위문화적/공동체주의적’ 조정양식을 통해 동원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전통적인 노조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대표’로서가 아닌 주로 관련된 개인으로서 활동한다.

## ■ 결론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조가 정치적 명성을 회복했던 ‘영광스러운 1960년대(glorious 1960s)’ 이후, 노조 및 노동계급 활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회적 및 정치적 동원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러한 동원의 가장 대표적 사례 중 많은 경우에 있어 노조들은 다수의 다른 행위자들과 동맹 및 연합에 관여하였다. 가장 최근의 사례 중에서는 2000



년대 초반의 전 지구적 정의운동(global justice campaigns),<sup>3)</sup> 유로메이데이,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sup>4)</sup> 2003년 반전운동(2003 antiwar campaigns)<sup>5)</sup>에서부터 2000년대 후반의 긴축반대(anti-austerity) 및 인디그나도스/점거운동(Indignados/Occupy campaigns)을 떠올릴 수 있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조직으로서의 노조보다는 개인으로서 활동한 노조 활동가들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 대 사회운동(조직)으로서의 노조’라는 대안의 관점에서 노조의 역할 변화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그러한 대안은 독특한 유형의 조직으로서 노조가 갖는 특성에 중점을 두면서, 그와 동시에 사회운동도 마찬가지로 내부 작동, 채택되는 레퍼토리 등의 측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 또 다른 추상적 형식을 대표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어느 시점에서든 노조와 ‘사회운동 조직’이 모두 매우 다양한 조직적 형태와 전술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한다. 따라서 노조가 조직적 특성에 있어 운동에 근접하였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노조가 속해 있는 관계들의 체계(systems of relations)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할 위험이 있다.

이와 동시에, 조직과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의 조합으로 인해 동맹은 여러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조정양식’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기본적인 관계적 패턴의 일부라도 파악함으로써 그러한 복잡성(complexity)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회운동적 조정양식과 연합적

3) 편집자 주: 지구 남반구에서 먼저 시작되어 전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 반자본주의 운동, 대안세계화 운동 등을 전 지구적 정의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주의적 성격을 가진 지구적 정의운동은 노조와 같은 공식기구의 연대가 아닌 작업장, 풀뿌리 공동체 등을 통해 관계를 구축하는 국제연대운동을 지향한다.

4) 편집자 주: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경향에 맞서기 위해 반세계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전 세계 사회운동가들의 회의이다. 제1회 포럼은 2001년 1월 브라질에서 세계경제포럼 개막일에 맞춰 개최되었고 이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세계경제포럼은 선진국 중심의 국제회의로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였으며, 중남미 좌파 지도자들과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진보운동가들이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다.

5) 편집자 주: 2003년 3월 미국 공화당 대통령 조지 부시 2세의 이라크 침공은 전 세계 반전운동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전 세계 6백여 도시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대가 거리에 출현하여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개입 종단을 요구하는 반전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정양식은 공적 행동주의의 전개양상과 조직 간 동맹에 대한 의존도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작동하는 경계 정의 메커니즘의 깊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1960년대 운동은 노조에 의한 독점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들은 자원교류를 위한 네트워크(resource exchange networks)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동맹의 전체 프로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비판적으로 평가하자면, 경계 정의는 계급과 그 계급의 조직화된 대표에게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담론에 의존하였다. 또한 학생에서 신좌파, 여성, (대부분 좌파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정당에 이르기까지 다른 정치조직들과 노조 간에 활동가들의 상당한 유입과 중복적 가입이 있었는데, 경계 정의는 이에도 의존하였다. 2000년대 첫 20년 동안의 전체 상황은 더욱 복잡해 보인다. 고전적인 노동자주의적(workerist) 담론의 문화적 중요성과 이러한 담론이 동맹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은 레닌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버전 모두에서 확실히 약화되었다. 노조들이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조직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하위문화적/공동체주의적 조정양식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유로메이데이나 사회포럼과 같이 노동 이슈가 중심이 되는 다른 반복적인 캠페인에서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특정 행사들과 관련해서는 노동 및 관련 이슈들에 관한 행동이 활동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가들은 단지 조직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러한 조직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때로는 그러한 조직과 명백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조정 형태들이 이전의 동원 사례에서 보다 공식적인 조직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제공했던 행동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라는 표현은 ‘노동계급 운동’이나 ‘노동운동’과 동의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노동계급 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 뚜렷이 구별되는 계급적 지위를 공유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행동주의(union activism)와 관련하여 정의된 경계들에 의해 밀접하게 연계된 개인들(예컨대 그들은 계급문화를 공유

한 것으로 서로 인식하고 노조에 함께 가입함으로써 연계되어 있다)

- 노동계급 구성원들을 공유하고 계급적 측면에서 고안된 행사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계급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노조와 기타 조직들(예컨대 노조가 평화 이슈와 관련하여 다른 결사체와 협력하는 경우, 이는 확실히 노조가 시민사회의 다른 부문과 통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에 해당하지만 이를 반드시 노동조합/계급 운동의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 개별 노조 활동가와 노조뿐 아니라 기타 조직들이 상당수 다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광범위한 캠페인을 통해 서로 연계되는 계급 및 노동 현안에 관한 행사들

다른 한편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표현은 네트워크가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하고 이질적이거나 기존의 여러 균열선(cleavage lines)을 가로지르며 걸쳐져 있으면서, 노조가 광범위한 동맹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들을 더 잘 표현한다. 실제로 두 가지 유형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서로 다른 직종과 산업부문(sectors)을 대표하는 서로 다른 노조들 간에 유대관계(ties)를 구축하고,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들 간에 공통된 정체성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계급 운동의 발달사에 있어 주요 내용 중 하나이며, (실제적일 뿐 아니라 인지적이며 감정적인) 연결관계(connections)와 연계가 형성되면서 직종, 지역성 또는 전통에 기반을 둔 이전의 충성심을 점차 대체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노조와 다른 사회적 및 정치적 행위자들 간에 광범위한 참여뿐만 아니라 여러 번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모든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저항주기(cycle of protest)는 그러한 통합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에서 당시 노조들은 전통적인 좌파 및 신좌파 정당들과 조직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현한 학생운동이나 이후의 여성운동으로부터도 지지를 확보하고 탄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Tarrow, 1989).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전 지구적 정의운동(global justice movement), 세계사회포럼, 위기극복(anti-crisis) 및 인디그나도스/점거운동에 해당하는 최근의 저항의 파동(waves of protest)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모두 기존의 균열선(특히 계급 경계선)에 기반을 둔 동맹들과 다른 유형의 충성심과 정체성 및 기타 관계적 패턴에 의존하는 네트워크(예컨대 자율주의 운동(autonomous movements)의 네트워크)들을 결합했다.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집단행동 분야에서 여러 조정방식들이 발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는데, 하나의 주요 연구과제는 어떠한 행위자들이 어떠한 관계적 패턴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그러한 분포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여러 다른 조직적 논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과 같이 여러 다른 노조들이 가입되어 있는 정상조직(peak associations)들의 경우, 중앙기구와 그 산하 지부들 간의 관계 양상에 따라 사회운동적 조정양식뿐만 아니라 조직적 조정양식과 연합적 조정양식을 결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결코 독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은, 특정 환경 및 고유한 집단행동 분야에서 노동 현안에 관한 행동을 촉진하는 개별적 및 조직적 네트워크의 구조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개략적으로 소개된 분석틀/framework이 이러한 작업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KLI**

---

---

## 참고문헌

---

---

- Beinlin, Joel(2012), "The Working Class and the Popular Movement in Egypt," edited by Jeannie Sowers and Chris Toensing, *The Journey to Tahrir: Revolution, Protest, and Social Change in Egypt*, pp.92-106. London: Verso.
- Diani, Mario(2015), *The Cement of Civil Society: Studying Networks in Localities*,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Maggio, Paul, and Walter W. Powell(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pp.147-160.
- Fantasia, Rick(1989), *Cultures of Solidarity*. Berkeley &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 Klandermans, Bert(1984),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Social-Psychological Expansions of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pp.583–600.
  - Peterson, Abby, Mattias Wahlström, and Magnus Wennerhag(2012), “Swedish Trade Unionism: A Renewed Social Movement?”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33, pp.621–647.
  - Pizzorno, Alessandro, Marino Regini, Emilio Reyneri, and Ida Regalia(1978), *Lotte Operaie e Sindacato in Italia 1968-1972*, Bologna: il Mulino.
  - Robinson, Ian(2000),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U.S. Unions: Toward Social Movement Unionism?” *Critical Sociology* 26 (1–2), pp.109–138.
  - Romanos, Eduardo(2013), “Collective Learning Processes within Social Movements: Some Insights into the Spanish 15-M/Indignados Movement,” edited by Cristina Flesher Fominaya and Laurence Cox, *Understanding European Movements*, London: Routledge.
  - Standing, Guy(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New York: Bloomsbury Academic.
  - Tarrow, Sidney(1989), *Democracy and Disorder*, Oxford: Clarendon Press.
  - Tattersall, Amanda(2015), *Power in Coalition Strategies for Strong Unions and Social Chang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Upchurch, M., G. Taylor, and A. Mathers(2009), “The Crisis of ‘Social Democratic’ Unionism: The ‘Opening up’ of Civil Society and the Prospects for Union Renewal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Labor Studies Journal* 34, pp.519–542.